

3월 가정예배

2020년 3월 1일(주)

예배의 부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시편 103:1~2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20장	다같이
기도	(말을 가족이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말은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1장 6~11절 (신약 187쪽)	인도자
말씀묵상	그날은 언제입니까?	가족대표
합심기도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 1.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3. 영은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4.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다같이
찬송가	408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말씀묵상 : 그날은 언제입니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힘겨운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열흘 전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코로나 19가 사라질까?'

101년 전 오늘, 비슷한 질문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언제 독립이 올까?' '이 땅의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면 독립이 올까?' 이 바람을 가지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더욱 잔혹해졌고, 독립의 소망도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은 1945년 8월 15일 기쁨과 감격의 '대한독립 만세'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확신하고, "주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까?" 질문합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인이 된 제자들로 인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쯤 코로나 사태가 끝납니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도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이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오늘의 문제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절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 반드시 진정될 것을 믿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증인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